

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가동... 상법 개정 드라이브

주식 저평가 해소 위한 기업 지배 구조 개혁... 8일 첫 토론회 증권거래세, 여당과 협의... 올해 안까지 입법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열고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중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이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올해 안까지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된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

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재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 같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당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배 주주가 꾀잡 뺨먹듯 회사의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며 "이걸 개선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라며 "법사위와 정부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와 당론 추진할 법안 성안을 해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 의총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주 2~3회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어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 이사 총심 의무를 주제로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인순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잠룡' 김동연-김경수, 독일서 비공개 만남

이재명 1심 선고 앞 회동 관심... 김경수 전 지사, 연말 귀국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 출장 중에 현지에서 머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두 사람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비공개 만남을 가져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도는 6일 김 지사의 독일 일정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가 지난 1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먼노믹스와 경제동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가 끝난 이후 독

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계획이었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도는 김 지사와 김 전 지사 회동의 계기, 대화 내용, 장소, 시간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지지 않았다.

이들의 회동에 독일 방문에 동행한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 등 경기도 측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와 김 전 지사가 현 정국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같이하고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석자가 없어 정확한 회담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13일 김 전 지사의 8·15 광

복절 복권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도의 정치 섹션들도 이제는 그만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8월 7일에는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모식에서는 김 지사와 김 전 지사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유학자 독일에서 머무는 김 전 지사는 연말에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교부 비율 법제화"

양부남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이 올해로 다가왔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소방 재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방재정 규모의 축소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는 특례규정의 일률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몰 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부남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는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주말 연대집회 대신 단독 집회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탄핵 구호·거리 행진 등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민주당 단독 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9일 집회는 민주당 단독 주최"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시민단체 참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어제까지 시민단체들과 계속 논의를 나눴고, 추후 논의를 통해 함께할 여지가 아직 열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9일에는 민주노총의 집회도 예정이 됐다"고

하고, 탄핵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형식상 민주당이 여기에 합류하기는 애매한 면이 있다. 민주당 집회의 경우 거리 행진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신 민주당은 16일에도 다시 특검법 수용 장외 집회를 하고, '특검 수용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도 이어가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광장의 대로를 함께 열 때"라며 "초심을 모아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